

## 한나라당 포천시시장 후보 이문용 內定

### 낙천예비후보 공동기자회견에 대한 반박문 발표



포천지역 정가의 최대 이슈였던 한나라당 포천시시장 후보공천은 이문용(62세) 재경 포천시민 회장으로 내정됐다.

지난 18일 저녁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직 후보자 추천심사위는 서울 모처에서 밤늦게까지 회의를 벌인 결과 이문용 재경시민 회장을 공천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이같은 결과를 20일 개최되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상정해 인준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19일 오후 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한나라당 공천에서 배제된 4명의 공동기자 회견에 대해 이문용 한나라당 포천시시장 후보 내정자는 '낙천예비후보 공동기자회견에 대한 반박문'을 발표했다.

이문용 공천 내정자는 "한나라당 포천시시장 예비후보인 저 이문용은 3주일간의 철저한 공천심사와 공천심사위원회의 포괄 끝에 선출됐다"고 전제하고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발표한 공동기자 회견문은 사실과 다른 추론과 예단이 있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 후보공천이 사전각본에 의해 실시된 사전 혹은 내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한 표결의 진

통을 겪은 공천과정에 대한 음해"라면서 "3월3일(4월3일의 오류임) 1차 후보자 면접 후 이문용 후보가 자격미달로 공심위원들이 공론화 주장하는데 공천심사 원칙중 후보자 자격미달은 파렴치법,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자, 세금미납, 병역기피 등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자 등이기 때문에 공동기자 회견문의 주장은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 시장은 절대 안돼. 내 사전에 경선은 없어"라고 한 고조흥 의원의 발언이 예상대로 현실이 되었다고 하는데 현 시장이 공천에서 제외되면 밀실공천이고 경선을 거치지 않고 공천심사위에서 투표로 결정하면 사전이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기도 31개시군중 공천심사 위 투표로 결정된 다수 지역을 모두 밀실공천이나"고 반박했다.

이문용 내정자는 또 "공천탈락한 사람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억지주장을 펴서 자신의 몸담았던 당과 정당한 절차를 거친 후보를 모욕하는 일"이라면서 "지속적으로 본인과 한나라당 명예에 손상이 가는 주장을 할 경우 적법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승환 기자 form66@paran.com

## 한나라당 시장후보 공천 再審議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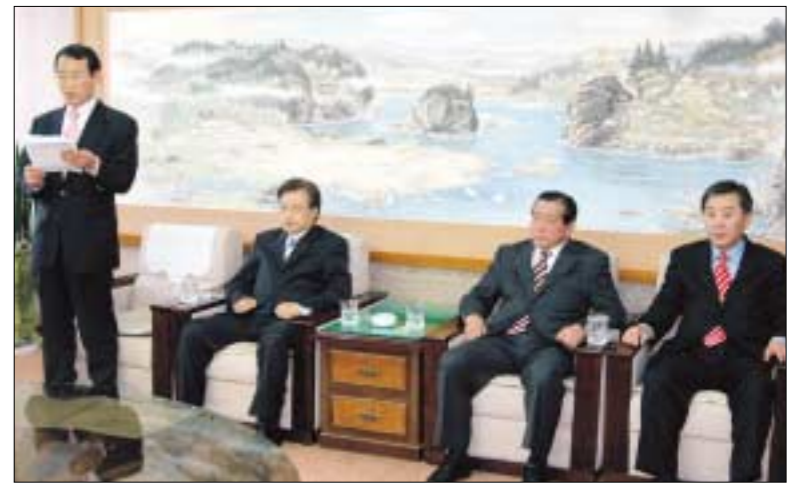
### 박용구 박윤국 이현묵 홍찬기 공동기자 회견 가져

한나라당 포천시시장 후보가 이문용 재경포천시민회장으로 결정되자 공천을 신청 4명의 예비후보가 밀실공천은 인정할 수 없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하기로 했다.

공천신청자 4명(박용구, 박윤국, 이현묵, 홍찬기)은 19일 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사전각본에 의해 실시된 한나라당 포천시시장 후보 공천은 공천이 아니라 사전 혹은 내천"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동기자회견 성명서에서 "(이번 공천은) 무조건 특정한 입맛에 맞는 자기편 손들어주기식의 고질병 그 자체였으며,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해 연출된 한편의 3류 저질 코미디였다"면서 "현 시장은 절대 안돼, 내 사전에 경선은 없애려고 주장한 고조흥 의원의 발언이 예상대로 현실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3월3일 1차 후보자 면접심사 후 이문용 후보는 자격 미달로 공심위원간 공론화 된 의견이 어떤 절차와 연유로 뒤바뀌게



한나라당 포천시시장 공천이 잘못되었다면서 박용구 예비후보가 (박윤국, 이현묵, 홍찬기) 공동대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되었는지 밝혀라"면서 "특정후보가 아니면 지방선거와 대선을 도저히 치를 수 없다며 공심위원들에게 특정후보를 결정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포천시민과 당원들 앞에 나서 공천심사 과정을 밝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중앙당은 한정

## 열린우리당 포천시의원 후보결정

### 한나라당과 경쟁력 고려 선거구 1~2명 공천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지난 17일 포천시의회 선거구별로 후보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경기도의회 제2선거구와 포천시의회 '나' 선거구 후보자 1명을 결정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은 포천시의회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비해 경쟁력이 뒤진다고 보고 '가' 선거구와 '나' 선거구의 경우 각각 1명씩 공천을 했으며 '나' 선거구는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해 2명을 공천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이 결정한 공천자 현황이다.

공천심사위원회는 경기도의회 포천시 제2선거구 도의원 후보로 정

주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희승(43세) 소홀농협 감사로 결정됐다.

또 포천시의회 '가' 선거구 열린우리당 후보는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한반도재단 정책연구원을 지낸 허청희(35세) 前이철우 국회의원 비서관이다.

포천시의회 '나' 선거구 열린우리당 후보는 영중농협장을 역임한 이병욱(53세) 現포천시의원이다. 포천시의회 '나' 선거구 열린우리당 후보는 한농연경기도연합회수석부회장인 김성남(46세) 소홀농협이사 와 임종석(49세) 포천의제21 문화복지분과위원장이 결정됐다.

하승환 기자 form66@paran.com

## 포천시의원 후보 무소속출마 러시

### 양당 공천 반발 ... 출마자 5~6명 될 듯

최기범(34세) 민주노동당 포천시위원장이 포천시의회 '나' 선거구에 출마한다고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 후보는 목포해양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포천아도니스CC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북대 외래교수인 오병익(47세) 현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제1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포천시의회 '가' 선거구에는 포천시의회 이종효(48세) 행정자치위원장, 장승호(36세) 포천시야구협회장, 김민호(32세) 포

천시축구협회 부회장 등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또 포천시의회 '나' 선거구의 무소속 출마자는 이부휘(48세) (주)포천그린 전무이며, '나' 선거구는 김영오 시의원 등이다.

이밖에도 1~2명이 시의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무소속 출마자가 증가한 것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공천에 반발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는 후보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하승환 기자 form66@paran.com

## 열린우리당 시장후보 22일 결정

열린우리당 포천시시장 후보와 경기도의회 포천시 제1선거구 후보 결정방식이 다시 변경되어 22일경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8일 공천을 신청한 2명의 열린우리당 포천시시장 후보 측에 의하면 18일과 20일 2일간에 걸쳐 포천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1천 샘플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합산해 시장 후보를 결정한다.

여론조사는 포천시 관내 14개 읍면동의 유권자 수에 따라 각 샘플을 결정하고 각각 여론조사는 응답율이 1천명이 될 때까지 지속한다.

또 경기도의원 후보 결정은 시장 후보와 같은 날짜에 700샘플로 2번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합산해 응답율이 높은 사람으로 결정한다. 지난 17일 장병태 열린우리당 포천시당원협의회장은 전화통화에서 "(열린우리당) 포천시시장 후보와 도의원 후보결정 방식은 서장원 예비후보와 이흥구 예비후보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승환 기자 form66@paran.com

## 한나라당 광역 기초 후보자 확정

### 광역 2명, 기초의원 후보 7명 발표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19일 경기도의원 및 포천시의회 후보를 공식 발표했다.

도당 공천심사위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의회 제1선거구 후보는 한나라당 포천·연천지구당 사무국장 출신인 이우형(50세) 후보로 포천중고를 졸업했으며, 현 국회의원 보좌관이다. 또 경기도의원 제2선거구는 지난 6일 발표한 이주석(58세) 후보로 수원대를 졸업하고 전경기도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자유총연맹 포천시지부장이다.

각 선거구별 한나라당 포천시의회 후보 공천현황은 다음과 같다.

2명을 선출하는 '가' 선거구에는 이천목(51세) 현 시의원과 이강림(47세) 현 시의원을 공천했다. 이천목 후보는 포천중고를 졸업하고 선단동 체육회장과 포천을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을 역임했다. 이강림 후보는 대림공업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농업경영인 포천군연합회

부회장과 포천을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 2명을 선출하는 '나' 선거구 역시 유성현(49세)과 강태선(45세) 현 시의원을 공천했다.

유성현 후보는 춘천방송고를 졸업하고 경북대 복지행정과에 재학 중에 있으며 포천군체육회 이사와 신북면 의용소방대장을 역임했다. 강태선 후보는 상지대 출신으로 영중면 체육회장과 포천시 새마을협의회 포천시 지회장을 맡고 있다.

'나' 선거구 한나라당 공천자는 최병덕(60세), 정종근(46세), 김중천(44세) 등 3명이다.

최병덕 후보는 대림검정고시 학력을 소유하고 현 시의원이며, 일동농협 전무를 역임했다. 또 정종근 후보는 포천중고 출신으로 포천시축구협회 부회장과 가산면 청년회장이자. 김중천 후보는 경희대를 출신으로 한국태권도 관장과 동남중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하승환 기자 form66@paran.com

# 안전은 생명입니다!

- 교통사고 보다 높은 산업재해 사망률 -

## 이제는 줄여야 합니다!

1,105 만 근로자 중  
2,493 명 사망

4,700 만 인구 중  
6,563 명 사망

안전한 산업현장, 건강한 대한민국!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4,700만 국민 가운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563명이었고, 산업현장의 1,105만 근로자 가운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493명 이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자의 발생비율이 교통사고보다 약 2배나 높은것입니다. 산업현장의 사망재해는 노사의 안전실천과 우리사회의 관심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